

로컬푸드 직매장 62개로 확대 연매출 750억원 달성



전남지역본부

풍광수토 2년 연속 매출 100억 돌파
아열대 공동브랜드 '오매향' 첫 선
상콤에 무화과 단일 품목 첫 100억
물난리 침수 피해지역 농기계 수리

갓은 시련을 안겨준 2020년을 돌아보면 전남 농업인들이 땀 흘려 이룬 여러 성과가 있었다. 전남쌀 공동 브랜드 '풍광수토'는 2년 연속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고, 전남 미래 먹거리인 아열대 작물 공동 브랜드 '오매향'이 처음 세상에 나왔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된 '로컬푸드(Local Food)' 직매장은 올해 62개까지 늘어 75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전국 쌀 생산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농도(農道) 전남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기후 변화 위기 속에서 든든한 식량 버팀목이 되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남 쌀 대표품종 '새청무' 계약재배 면적은 2만 1000ha가 넘었다. 전남 11개 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이 생산에 참여하는 쌀 '풍광수토'는 올해 130억원 판매되며 2년 연속 100억 원 이상 매출액 돌파를 기록했다.

전남 과실 공동브랜드는 '상콤'에 수도권 등 다양한 지역에서 판촉 활동을 벌여왔다. '상콤' 무화과는 단일 품목으로 첫 매출액 100억원을 달성했다. 전남농협은 유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바나나, 애플망고, 구아바 등 품목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올해 아열대작물 공동브랜드인 '오매향'을 처음으로 소비자에게 선보였다.

올해 19개 늘어나며 총 62개로 확대된 '로컬푸드 직매장'은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의 매출 효과 노릇을 하고 있다.

지난 11월 기준 매출은 745억800만원으로, 1년



전남농협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기후 변화 위기 속에서 농도(農道) 전남을 대표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무안군 삼향읍 전남농협 전경.

전보다 43.1%(224억원) 급증했다. 이는 전국 평균 매출 증가율(36.2%)을 크게 웃돈다. 전남 16개 시·군, 33개 농축협이 로컬푸드 직매장에 동참했으며, 최근에는 화순 도곡농협이 전국 백화점 업계에서는 최초로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농업인력 수급이 위기를 맞으면서 전남농협 임직원들이 팔 걷고 나서기도 했다. 연 인원 총 1만4047명이 6만9504시간에 걸쳐 농촌 일손을 돕고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탤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전남 하나로마트 309곳이 5개월 동안 공적마스크 261만9200개에 대한 판매처를 도맡아왔다. 최악의 물난리가 난 지난 여름에는 농기계 침수 피해를 겪은 농업인 250명에

7800만원 상당 수리를 지원했고 농경지 병해충 방제도 시행했다. 전남지역 축산농협은 100여 명의 복구 인력과 굴착기(6대), 조사료(98t)를 구례에 집중 지원해 상생을 실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판로가 막힌 농민을 위해 농협 전남본부 임직원들은 하루 세끼 공기밥을 먹자는 '일삼공' 운동과 '사랑의 꽃 나눔 행사',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국산돼지고기 더 먹기 운동', 화요일·목요일 '우유 나눔', '드라이브 스루 판매' 등을 펼쳤다.

전남농협은 온라인몰과 공공기관, 기업체 등을 오가며 친환경농산물꾸러미 판매를 벌여 3억7900만원(1만3300건) 매출 실적을 올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박서홍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편리한 농업·돈 되는 농업 될 수 있게 식량 창고·친환경1번지 위상 지킬 것”

“전남 농민들이 '돈 되는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식량창고, 친환경농산물 1번지 위상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제38대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으로 취임하며 2021년을 시작하는 박서홍(55·사진) 신임 본부장은 “실업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최장 장마와 세 차례의 태풍,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겹쳤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 본부장은 취임 첫날 농협공동방제단과 AI 방제현장을 방문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박 본부장은 지난 1991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뒤 전남에서 대부분을 근무했다.

30년 '농협맨'이 된 그는 전남본부 농촌지원단장, 농정홍보실장, 목포중앙지점장, 해남군지부장, 농협경제제주 자재부장 등 요직을 거치며 농산물 유통, 홍보, 지도 업무에서 두루두루 경험을 쌓았다.

“2021년은 전남농협이 '종합농협'의 이름을 단 60돌이 되는 해입니다. 전남농협은 32만 농업인들이 모인 전남 최대 생산자단체이자, 6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농업 경쟁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농협본 1조 취지를 이루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한 선배 농협인들의 열정과 자세를 본받아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의 전남농협을 만들기 위해 헌신의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박 본부장은 새해 전남농협 설계를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맞춰 세웠다. 경영 전략은 디지털을 강화한 유통 혁신과 로컬푸드(Local Food) 직거래 확대 크게 나눈다.

먼저 농사와 유통, 금융 등 모든 방면에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손 공백을 메울 방침이다. 농업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산물 판매를 잘 해주는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영농형태양광단지 등 농의소득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남도 '농업인월급제'에 더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업을 중심으로 사회개혁을 꿈꿨던 다산 정약용은 정초에 “농사를 편리하도록 하며(편농·便農), 소득이 되도록 해야 하며(후농·厚農), 농사 짓는 사람을 대접해 줘야 한다(상농·上農)”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안정된 농가소득안정과 복지향상으로 농협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원활한 농축산물 수급을 위해 유통구조를 개



농사·유통·금융 등 AI·ICT 융합
‘농업인월급제’ 많이 참여 유도
유통혁신·로컬푸드 직거래 확대
‘농업인 소득안정 주력하겠다’

선해야 한다는 이성의 농협중앙회장의 신념도 맥락이 같습니다. 두 시대를 잇는 신념을 따라 전남농협은 올 한해 전남 농업인들에게 편리한 농업, 돈 되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의무를 기울일 예정입니다.”

박 본부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농업과 농촌은 한번 붕괴되면 회복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먹거리 생산 기반인 농경지가 없어지고 농민들이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전진기지이자 최후보루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곡물수입국으로, 최근 급속한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와 달리 전 세계적인 식량생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민들의 식량안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됐다는 조사 결과(한국농촌경제연구원)가 나왔다”며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힘은 우리 농축산물 애용에서 나오기에 국민 모두가 국산 농산물 소비로 농업인들에 힘찬 응원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지역 33개 농협이 참여한 '로컬푸드 직매장' 62곳은 올해 75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려 중소농에 효과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